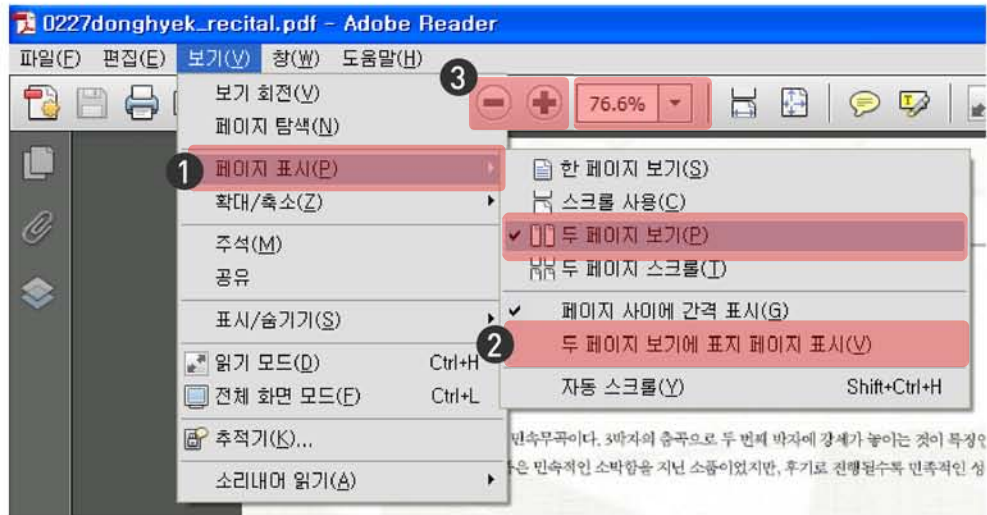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an-Na Chang

Dong Hyek Lim

CREDIA

and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CREDIA

프로그램	PROGRAM	2
곡목해설	PROGRAM NOTE	6
프로필	PROFILE	10
프리뷰	PREVIEW	18

Han-Na Chang, Dong Hyek Lim,
and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2019년 11월 13일 (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Wednesday, November 13,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장한나

Han-Na Chang, Conductor

피아노, 임동혁

Dong Hyek Lim, Pianist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그리그 1843-1907
노르웨이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작품번호 46

14'

- I. 아침의 기분
- II. 오제의 죽음
- III. 아니트라외 춤
- IV. 산속 마왕의 동굴에서

그리그 1843-1907
노르웨이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30'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 I. 매우 빠르면서도 알맞게
- II. 느리게
- III. 빠르게, 음 하나하나를 적당히 강조하여

CREEDIA

중 간 휴 식

차이콥스키 1840-1893
러시아

교향곡 6번 나단조, 작품번호 74 '비창'

49'

- I.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II. 빠르고 우아하게
- III.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IV. 느리고 비통하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 Didier Gourdon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E. Grieg 1843-1907
Norway

Peer Gynt Suite No. 1, Op. 46

14'

- I. Morning Mood
- II. Death of Ase
- III. Anitra's Dance
- IV.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E. Grieg 1843-1907
Norway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30'

Dong Hyek Lim, Piano

- I. Allegro molto moderato
- II. Adagio
- III.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CREEDIA

INTERMISSION

P.I. Tchaikovsky 1840-1893
Russia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49'

-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 II. Allegro con grazia
- III. Allegro molto vivace
- IV. Finale: Adagio lamentoso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에드바르 하계롭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작품번호 46

Edvard Hagerup Grieg
Peer Gynt Suite No. 1,
Op. 46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1843-1907). 그는 노르웨이의 자연을 떠오르게 하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극음악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1874년에 노르웨이의 대문호 헨리크 입센이 자신의 시극 ‘페르 귄트’의 초연에 사용할 연극음악을 의뢰하자, 그리그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다. 하지만 진행은 빠르지 못했다. 그는 8월에 한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페르 귄트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네. 가을까지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 정말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과제야.” 하지만 입센의 뛰어난 문장과 그 이야기에서 노르웨이의 정신을 느낀 그는 작곡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듬해 여름에 작곡을 마쳤다. 초연은 1876년 2월 24일에 크리스티아니아(‘오슬로’의 옛 이름)의 국민극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몽상가이자 난봉꾼이었던 페르 귄트는 홀어머니 오제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는 초대 받지 못한 결혼식에서 신부 잉그리드를 납치하여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신부를 떠나 산속을 유랑한다. 그러던 중 마왕의 딸을 만나 연인이 되지만, 말 한마디 실수로 트롤(troll)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 때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자 트롤들이 흩어져 간신히 빠져나온다. 베이그라는 괴물도 만나지만, 역시 교회 종소리와 오르간 소리로 구조된다. 귄트는 깊은 숲속에서 솔베이를 만나고, 둘은 연인이 되어 산속에서 산다. 하지만 마왕의 딸이 나타나 저주를 퍼붓자, 이를 피해 홀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공상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그의 말에 미소를 머금고 숨을 거둔다. 귄트는 모로코에서 도둑과 밀매범의 물건을 취하고, 아라비아에서 베두인 족장의 딸 아니트라와 연인이 된다. 하지만 모든 재물을 그녀에게 잃는다. 귄트는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금광으로 큰돈을 벌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 또다시 무일푼이 되고 만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귄트는 백발이 되도록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린 솔베이의 무릎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숨을 거둔다.

<페르 귄트>는 본래 전주곡, 행진곡, 춤곡, 노래, 합창곡 등 모두 2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작이 노르웨이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음악도 민족주의적 정서와 북유럽의 독특한 분위기가 감돈다. 그리그는 이 중에서 네 곡을 골라 극의 순서와 관계없이 새롭게 배열하여 1888년에 ‘모음곡 1번’을 출판했으며, 후에 다른 네 곡을 골라 1891년에 ‘모음곡 2번’을 출판했다. 오늘은 이 두 모음곡 중에서 1번을 연주한다.

1곡 ‘아침의 기분’은 4막 전주곡이다. 모로코 해안의 고요한 새벽 여명을 그린 후, 곧 환한 햇살과 같이 상쾌한 현악 앙상블의 음향이 가득히 퍼져나간다. 2곡 ‘오제의 죽음’은 3막 오제의 임종 장면으로, 약음기를 붙인 현악기가 만드는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에서 절제된 비통함이 가슴 깊이 사무쳐온다. 3곡 ‘아니트라의 춤’은 4막에서 아니트라가 홀로 귄트 앞에서 유혹의 춤을 추는 장면으로, 이국적이고 요염한 바이올린 선율이 매력적이다. 4곡 ‘산속 마왕의 동굴에서’는 2막에서 마왕의 부하인 트롤들이 춤추고 날뛰며 귄트를 위협하는 장면이다.

에드바르 하계롭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Edvard Hagerup 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1868)은 25세 때의 초기 작품으로,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니나와 결혼하고 딸 알렉산드라를 얻었던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 (하지만 딸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그리그 부부는 더는 자녀를 두지 않았다.) 이 곡은 북유럽 특유의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아노의 화려한 극적인 표현, 경쾌한 리듬 등으로 낭만시대의 독특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순수한 서정미에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의 “북구의 쇼팽”이라는 표현에 공감하게 된다. 프란츠 리스트도 1870년에 로마에서 그리그를 만났을 때 직접 이 곡을 연주해보고 격찬했다. 그는 관현악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으며, 그리그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출판했다.

1악장 ‘매우 빠르면서도 알맞게’: 팀파니의 연타와 오케스트라의 힘찬 화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곧바로 피아노가 제1주제를 강렬하게 연주한다. 노르웨이 스타일의 춤곡이 긴장을 이완시킨 후, 서정적이고 고요한 제2주제가 등장한다. 이 두 주제가 소나타 형식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그리그의 뛰어난 작곡 실력을 보여준다.

2악장 ‘느리게’: 노르웨이의 자연을 그리는 듯한 서정적인 서주가 길게 연주된다. 장식이 많은 피아노 선율은 쇼팽의 협주곡을 연상시키며, 내면에 갈등이 있는 듯 표정이 자주 바뀐다. 쉽 없이 3악장으로 연결된다.

3악장 ‘빠르게, 음 하나하나를 적당히 강조하여’: 피아노가 강렬한 스케일을 연주한 후, 빠른 리듬에 맞춰 열정적인 첫 주제를 제시한다. 극적인 진행 중에 등장한 플루트의 서정적인 주제가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러한 주제들이 론도형식으로 반복된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나단조,
작품번호 74 ‘비창’

Pyotr Ilyich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1891년 여름, 표트르 차이콥스키(1840-93)는 자신의 삶을 주제로 새로운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다. 1악장은 충동적인 열정 및 자신감과 활동에 대한 갈망, 2악장은 사랑, 3악장은 실망, 4악장은 죽음의 미했다. 그런데 그는 가을에 작곡을 중단했다. 자신감을 잃은 탓이었다. 그는 40대에 들어서부터 자신의 작품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종종 슬럼프에 빠지곤 했는데, 50대가 되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893년 2월 23일 조카 블라디미르 다비도프에게 희망에 찬 편지를 썼다. “새로운 교향곡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이번엔 표제 교향곡이지. 내용은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겨두려 해. ...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여행 중에 마음속으로 작곡하면서 몇 번이

고 평평 울었어.” 차이콥스키는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고, 9월 1일에 출판업자 페테르 위르겐손에게 신작의 완성을 알렸다. “나는 진정으로 일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행복합니다.”

10월 28일 차이콥스키의 지휘로 이루어진 초연에서 공개된 새로운 교향곡의 이름은 ‘교향곡 6번 나단조’였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이 절대음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에, 출판할 때에도 이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느리고 무거운 마지막 악장 때문에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위르겐손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을 요구했다. 이에 차이콥스키는 동생인 모데스트가 제안한 ‘Патетический’(빠메찌체스끼)를 제목으로 결정했다. 이 단어는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강렬한 감흥이나 강한 감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초연 후 단 9일 후인 11월 6일에 차이콥스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그는 콜레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유력하다.) 18일 추모음악회에서 재연된 이 마지막 교향곡은 작곡자 자신의 진혼곡이 되어, 슬픔에 잠긴 참석자들에게 초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반전에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의도와는 달리, 마음속의 깊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는 프랑스어 ‘Pathétique’로 바뀌어 출판되었다.

<비창 교향곡>은 교향곡의 일반적인 양식과는 차이가 커서, 네 개의 교향시 모음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기는 하지만 음악적 내용은 자유롭다. 흐느끼는 바순과 탄식하는 현악으로 서주가 연주된 후, 바순 선율이 변형된 제1주제가 공포에 휩싸인 듯 불안한 분위기로 비올라에 의해 제시된다. 반면에 매우 감성적인 제2주제는 차이콥스키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발전부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며 대단원에 이르고, 짧은 재현부를 거쳐 관악기의 장엄한 코랄이 울려 퍼지는 평온한 코다로 마무리한다.

2악장은 느린 악장이 아닌, 왈츠를 연상시키는 춤곡이 연주된다. 그런데 첼로의 주제 선율은 절뚝거린다는 느낌을 주는데, 5/4박자라는 독특한 박자에 그 이유가 있다. 5박자의 춤곡, 그에게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이미지를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 중간 부분에는 운명의 발걸음과 같은 팀파니의 연타를 배경으로 그리움을 가득 담은 선율이 등장한다. 그리고 주제를 재현한 후 짧은 코다로 마무리한다.

3악장은 스케르초 대신 발전부가 없는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빠른 타란텔라 리듬으로 중얼거리는 경쾌한 선율과 용맹하고 절도 있는 행진곡이 결합되어 있으며, 반전 없이 힘차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4악장의 첫 주제는 3악장 마무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깊은 절망과 비통에 빠지고 만다. 단순히 내려오는 선율로 들리지만, 사실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한 음씩 번갈아 연주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두 바이올린 파트를 마주 보도록 배치하여 소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듯한 공간적인 효과를 피하기도 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위로를 얻고 평온하게 추스른다. 하지만 이는 잠시일 뿐, 다시 절망의 주제로 돌아와 열정적으로 내달린다. 결국 공(gong)의 은은한 울림이 정해진 운명을 알리고, 위로의 주제가 연주되며 사라지듯이 마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마에스트라’와 ‘비르투오조’로 진화한

“첼로의 요정”과 “피아노의 앙팡테리블”



장한나의
베스트셀러 앨범!!

오펜바흐: 재클린의 눈물
차이코프스키: 안단테 칸타빌레
랄로: 첼로 협주곡
카잘스: 새의 노래 등



임동혁의 최신보,
최초의 협주곡 레코딩!!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교향적 무곡*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BBC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 지휘

지휘자
장한나

Han-Na Chang
Conductor

“자신감 넘치고, 영민하며, 직관적인 지휘자. 장한나는 믿을 수 없이 날렵한 존재의 표상이다. 그녀의 지휘는 재빠르고 민첩하며 비트를 정확히 강타한다.” - 더 리버풀 에코

장한나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이다. 2017년 8월 취임하였고, 2023년까지 임기를 연장하였다.

객원 지휘자로서 장한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쾰른 방송 교향악단, 밤베르크 심포니,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릴 국립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인디애나폴리스, 미네소타, 네이플스, 시애틀, 예테보리, 싱가포르,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한다. 2014년 9월 BBC 프롬스에서 극찬을 받은 지휘 데뷔를 선보였다.

장한나는 1994년 열한 살의 나이로 제 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그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뮌헨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라스칼라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보스턴 심포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EMI 클래식 (현 워너 클래식) 레이블로 발매한 음반들로 독일 에코 클래식 어워드, 프랑스 칸느 클래식, 벨기에 세실리아 어워드 및 영국 그라모폰 올해의 협주곡 상 등을 받았으며, 그의 음반들은 여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장한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0세부터 미국 뉴욕에서 성장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Han-Na Chang has been the Artistic Leader and Chief Conductor of the Trondheim Symfoniorkester & Opera in Norway since August 2017.

As a guest conductor, she has worked with the Philharmonia Orchestra, Oslo Philharmonic, Staatskapelle Dresden, WDR Sinfonieorchester Köln, Bamberger Symphoniker, Toronto Symphony,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a, Minnesota Orchestra, the Cincinnati, St Louis, Indianapolis, Seattle, Sarasota, Naples, Gothenburg, Singapore and Tokyo Symphony orchestras, Royal Stockholm Philharmonic Orchestra, National Taiwan Symphony and the Orchestra del Teatro di San Carlo di Napoli amongst others. Other upcoming guest conducting debuts include San Francisco Symphony Orchestra, Royal Concertgebouw, the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national de Lyon, Danish National Symphony, Iceland Symphony, Milwaukee Symphony, Orchestre Metropolitain de Montreal, Detroit and Atlanta Symphony Orchestras. Han-Na Chang made an acclaimed conducting debut at the BBC Proms in September 2014. Prior to being appointed as the Artistic Leader and Chief Conductor, she held the post of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Trondheim Symfoniorkester for four seasons from August 2013.

Her professional music career started at the age of 11, when she won the Rostropovich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in 1994. As a soloist, she has performed with orchestras such as the Berliner Philharmoniker, New York and Los Angeles Philharmonic, London Symphony Orchestra, Sinf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ünchner Philharmoniker, Staatskapelle Dresden, Philadelphia Orchestra, l'Orchestre de Paris,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Filarmonica della Scala, Orchestra dell'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The Cleveland Orchestra and the Chicago, Boston, San Francisco, Montreal and Sydney Symphony orchestras. Her recordings, exclusively for the former EMI Classics, have received ECHO Klassik, Caecilia and Cannes Classical awards, as well as a Gramophone Concerto of the Year accolade among others, and remain world-wide bestsellers.

Han-Na Chang studied Philosophy at Harvard University and served as the Roving Goodwill Ambassador for the Korean Red Cross.

피아니스트

임동혁

Dong Hyek Lim

Pianist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 입상,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1위, 2005년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 2007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에 올랐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추천을 받아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로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한다. 2집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다. 2015년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샬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 홀 등 전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베르비에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백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18년 6월에는 함부르크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첫 듀오 무대를 가졌고,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헤리치와 함께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앨범이 올해 5월에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스에서 발매되었다. 그는 샤를 뒤투아와 베토벤 콘체르트, 그리고 그의 지휘 하에 아르헤리치와 함께 스트라빈스키를 연주할 예정이다.



Acclaimed by audiences, critics and fellow musicians, Dong Hyek Lim is regarded as one of the fin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Since winning the prizes at the International Busoni Piano Competition, the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the Long-Thibaud-Crespin Competition, Lim has rapidly established a major international reputation. He also won three of the world's major competitions, including Queen Elisabeth Competition, the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2001, Lim became the youngest pianist ever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EMI Classics and received the Diapason d'Or award in France for his debut album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 series. His second recording on EMI was awarded the Choc Prize by Le Monde de la Musique. Also, Lim achieved great success in his third album, playing Goldberg Variations by J.S Bach. His fourth album 'Chopin 24 preludes', with Warner, has been acclaimed by Gramophone and BBC Magazine. This year, he released his fifth album which recorded with the BBC Symphony Orchestra and Martha Argerich.

He has performed with world's major orchestra such as NHK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New Japan Philharmonic under conductors Charles Dutoit, Myung-Whun Chung, Yuri Temirkanov.

In the 2019/20 season, he releases the recording of Rachmaninoff with Martha Argerich and BBC Symphony Orchestra on Warner. Other highlights include re-unite with Charles Dutoit to perform Beethoven piano concerto and under Charles Dutoit conduct with Martha Argerich to play Stravinsky. Last year, Lim performed as a duo with Martha Argerich at Martha Argerich Festival in Hamburg.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지휘자 장한나는 2013년부터 트론헤임 심포니(이하 TSO)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며 이 오케스트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그는 TSO의 첫 번째 여성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넘치는 재능과 수준 높은 음악으로 노르웨이 문화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해 왔다. TSO는 오래된 음악적 전통을 자랑한다. 19세기까지 주요 음악가들이 활동하는 종교 음악의 중심지였던 트론헤임 지역에 유럽 음악이 확장되면서 다수의 음악 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TSO는 1909년 설립되었으며, 1947년 트론헤임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생기면서 현재의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 중 트론헤임 심포니 콘서트 홀은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TSO는 상주 홀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들의 연주를 멈출 수 없었다. TSO는 시내 교회로 자리를 옮겨 곳곳이 공연을 이어나갔다.

최근 TSO는 노르웨이 문화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매 시즌 오페라 프로젝션을 포함한 다양한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아웃리칭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세대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TSO는 최상의 음악을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왔다. TSO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향적 공연, 오페라와 음악극, 그리고 트론헤임 솔로이스츠와 협업이 그것이다. 특히 오페라와 음악극을 위해서는 니다로스 교회의 전문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한다.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세계 엑스포 초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베이징 세기극장과 난핑, 쑤저우에서 성공적인 중국 투어를 마쳤다. 그 밖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폴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계속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With its versatility, vitality and musical quality of the highest standard, Trondheim Symfoniorkester & Opera (TSO) is regarded as a powerhouse of Norwegian culture, establishing itself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nation as a whole.

The orchestra has enjoyed a long musical tradition. Up to the 19th century, Trondheim was a centre for sacred music, with many significant musicians settling in the area. Keeping pace with the expanding European music culture, several music societies were formed. TSO was founded in 1909, and with the formation of Trondheim Chamber Orchestra in 1947, the modern symphony of Trondheim began to take on the shape we know toda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TSO was expelled from its concert hall, as the German occupying power appropriated the building and turned it in to their local headquarters, Deutsches Haus in Trondheim. However, that did not deter the TSO from presenting music to the people of Trondheim during these difficult years. Activity was upheld in the churches of the city, serving as a temporary stage for a string of concert performances throughout the war.

In more recent times, the orchestra has established a solid position as an inspiring impulse. Each season TSO presents a diverse classical programme including full stage opera productions. Through numerous education and community programs we display our commitment to the future of music and our support for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The main ambition of the TSO is to produce and convey musical performances at the highest level, to an audience as broad as possible. A leading strategy throughout 2017 has been innovation in the way our music is presented. TSO has a complex organizational model that covers three main areas: symphonic activity, opera and music theatre, including a professional choir in cooperation with the Nidaros Cathedral and a collaboration with the Trondheim Soloists, in exchanging musicians between the two orchestras.

TSO toured China in 2010, premiering at the opening of the World Expo 2010 in Shanghai. This highly successful tour also included a performance in Beijing's Century Theater and concerts in Nanping and Suzhou. Successful tours in Germany, Austria, Spain, Czech Republic and Poland have given the orchestra a good international reputation.



**Artistic Leader
& Chief Conductor**

Han-Na Chang

Violin I

Lesley Hatfield

Ine Pollenus

Hilde Gimse

Elga Akhaladze

Seiki Ueno

Mathieu Michel Christian Roussel

Kristin Steinum

Sunniva Carmen Fossum

Marianne Harmens

Liv Trondsetås

Maria Scherner-Daszinnies

Sigurd Imsen

Kristin Jæger

Cecilia Wählberg

Violin II

Caroline Simon

Renata Kubala

Gang Wang

Ian Hedley

Ellen Heier

Hilde Kjøll

Adrian Goicoechea Selfjord

Erling Skaufel

Einar Faret Saastad

Ana Termeulen

Hilde Synøve Øverkil

Kaja Rogers

Viola

Jan Petter Hilstad

Ole Wuttudal

Einar Heier

Kristoffer Bjerke Gjørde

Ragnhild Torp

Verona Rapp

Lars Marius Hølås

Karoline Vik Hegge

Hanul Lee

Ola Sveinung Røkkum

Cello

Nicholas Andres Mariscal

Joakim Munkner

Margrete W. Hegelund

Torleif Holm

Dag Rune Løvberg

Helge Myhrstad

Jaroslav Havel

Cecilie Koch

Eivind Rossbach Heier

Double Bass

Aaron Olguin
Erik Magnus Löwendahl
Håkan Henriksen
Robert Gyurjan
Truls Waagø
Nils Anmarkrud Bergaust
Ole-Herman Schøyen Sjölin
Sven Göran Sjölin

Flute

Siri Hovde Nordbø
Annika Nordstrøm
Torstein Hagen

Oboe

Arnulf Johansen
Philip Riordan

Clarinet

Lars Hilde
Jan Inge Moksnes

Bassoon

Sarah Warner Vik
Elin Nilsen
Kristin Svare

Horn

Irene Ruud
Eirik Baardsen Haaland
Bente Rognsaa
Peter Martin Hatfield
Stein Villanger

Trumpet

Hans Petter Stangnes
Odd-Bjørn Øslebø Lund
Eli Blåsmo

Trombone

Arne Johansen
Ole Jørgen Melhus
Kjell Ove Abelseth

Tuba

Eivind Erdal

Timpani

Bjørn Seiersten

Percussion

Lars Sitter
Jørn Arne Johansen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포디엄에 서게 된 마에스트라 장한나

최고의 여성지휘자 19인에 선정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첼로를 들고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무대에 나온 장한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옛된 모습의 꼬마가 첼로를 연주하는 것 자체도 신기했는데, 열한 살짜리 장한나는 이 콩쿠르에서 무려 우승을 거머쥐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이다.

데뷔 25주년을 맞는 장한나는 그간 세계 최정상급 첼리스트로서 독보적인 이력과 EMI 레이블에서 발표한 음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간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미샤 마이스키, 주세페 시노폴리, 안토니오 파파노, 로린 마젤 등 세기의 명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음악 세계를 넓혀왔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첼로를 시작했으니, 20여 년간 연주할 수 있는 주요한 첼로 레퍼토리는 대부분 연주했다. 다른 악기에 비해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 첼로의 한계를 일찍 느끼게 된 장한나는 지휘를 통해 음악적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2007년,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SIYOF)을 통해 지휘자로 데뷔한 그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문화재단 기획으로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을 6년간 이끌었다. 오디션을 거친 젊은 음악 유망주들을 선별해 한 달간 함께 연습하고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에서 총 3회 공연을 했다. 처음엔 첼리스트의 외도 정도로 인식했던 사람들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훌륭한 앙상블을, 그들의 팀웍과 애정과 열정과 음악을 접하며 ‘지휘자 장한나’를 보게 됐다.

이러진 행보는 눈부셨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리버풀 필하모닉, 나폴리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2014년에는 카타르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서 BBC 프롬스 무대에 섰다. 첼리스트로서 만들어냈던 그녀의 음악을 이제 수십 명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공연에 앞서 ‘지휘자 장한나’를 만나봤다.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오다, 지휘자 장한나

5년 만의 한국 무대에서 첼리스트가 아닌 지휘자로서,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합니다. 지휘자 장한나를 만나게 되는 우리도 설레지만, 한나씨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기쁘고 좋아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한국 청중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저의 음악 가족인 트론헤임 오케스트라와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주셨던 한국의 청중들을 서로 소개해주는 자리,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휘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지휘자가 되겠다 마음먹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열한 살 때 첼리스트로서 무대에 데뷔하면서 첼로 레퍼토리를 연주했어요. 피아노는 악기가 크니까 그 나이에 데뷔하기도 힘들고 연주할 레퍼토리도 많지만, 첼로는 상대적으로 레퍼토리가 적거든요. 이미 알고 자주 연주했던 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극과 영양분이 필요했어요.

일찍 데뷔한 첼리스트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지휘자의 세계에 눈뜨게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보통 첼로 협연을 마치면 공연 후반부엔 교향곡 연주를 들으러 객석에 들어갔는데, 함께 자주 연주했던 주세페 시노폴리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 말러, 브루크너를 듣고서 교향곡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자극, 더 깊이 파고들 ‘샘’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말러, 브루크너, 특히 베토벤 교향곡 악보를 사서 읽고 녹음도 다양하게 들어보며 혼자 공부를 시작했죠.

지휘자로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국내 공식 무대에서 지휘봉을 처음 잡은 것은 2007년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었죠?

제 인생의 전환점에 ‘점’을 찍는다면 바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났던 그때였어요. 지휘자의 삶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그곳에서 지휘를 시작하게 됐을까,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졌는지 모르지만 일이 저절로 될 때가 있나 봐요. 운명적으로, ‘나는 지휘를 할 거야, 지휘하고 싶어’ 하고 꿈꾸던 생각이 아무리 간절하고 강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자기 오케스트라를 만나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남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좋은 전환점이었죠.

때마다 좋은 인연이 있었네요. 최고의 첼로 선생님과 훌륭한 멘토가 되어준 지휘자들, 지휘자로 세워준 극장, 열정을 갖고 따라준 단원들, 지금의 트론헤임 오케스트라까지...

제 음악 인생에서 결정적인 인연 단 하나를 꼽으라면 열 살 때, 마이스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음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음악이 뭔지 선생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죠. 사실 뭔가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선생님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의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였지만 그 모든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소중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에게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생각과 행동이 유연하고 앞서가는 분이죠. 제가 지휘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감사해요.

마이스키 선생님은 2012년 앵솔루트 클래식과 2014년 카타르 필에서 R.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를, 2017년 4월, 트론헤임 정식 취임 전에 오셔서 드보르자크 협주곡을 연주하셨어요. ‘앵솔루트 클래식’ 때도 물론이었지만 트론헤임 연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단원들이 꼭 다시 모시고 싶다고 요청해서 2020년 5월, 시즌 마지막 공연으로 생상스 첼로 협주곡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 공연 때마다 와주셔서 뿌듯했고 영광이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어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니엘 하딩 등 유명 지휘자들이 이끌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트론헤임은 바이킹의 수도였고, 원래 노르웨이의 수도였어요. 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면서 오슬로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트론헤임은 정신적인 수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두들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뜨겁고 열정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시작한 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지휘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원들은 연주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표출하는데, 그런 점이 저와 아주 잘 맞아요. 함께 연주하는 게 즐겁고, 매번 기대되는 식구들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음악감독 제의가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을 텐데, 트론헤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가 봅니다.

2~3년 전에 스웨덴, 네덜란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제의가 있었어요. 신중히 결정하고 싶어 미리 오케스트라와 만나 몇 번씩 연주해봤는데 ‘좀 더 열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목마름이 느껴졌어요. 오케스트라와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씩, 1년에 10주 넘게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쉽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론헤임과는 갈등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 때마다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이 오케스트라는 자신의 ‘최선’을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공연은 소중한 특별한 일이지만, 매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저녁 시간에 일하고, 새로운 레퍼토리 도전도 많고 힘들어서 고단한 일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다 주는 트론헤임 오케스트라는 특별해요.

지휘자 장한나 좀 더 알아보기

세계적인 연주자로 바쁘게 활동하다가 지휘봉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이점이 있을까요?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악기와 살고, 자나 깨나 음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끌어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악보 뒤에 감춰진 소리를 내 손끝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지휘자가 현악기를 잘 안다는 것은 저로서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어떤 악기든 본인이 마스터한 악기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필드에서 났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휘는 필드에 뛰어들어 직접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제시해야 하는 코치잖아요. 추상적인 영역인데, 현실적인 연주 경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 훨씬 좋죠.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 역시 최고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을 귀감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첼로를 하시든 지휘를 하시든 그 열정은 바뀌거나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휘할 때에도 단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지 늘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작품에 미쳐 있으면 단원들도 같이 미치게 돼요. 단 한 번도 포장하거나,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음악이 내가 되고 내가 음악이 될 정도로 순수하게 빠져 있으면 함께한 음악가들은 그게 뭔지 다들 아는 거죠.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아주 특별했어요. 어느 분야든 특출한 사람들의 열정 레벨은 보통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내한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죠.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곡가 그리그의 작품들이 있네요. 노르웨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서, 한나씨가 생각하는 작곡가 ‘그리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초청 공연을 앞두고 레퍼토리 선정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리그를 선택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그리그는 나라의 목소리이자 자부심이에요. 그중에서도 페르귄트 모음곡과 피아노 협주곡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유명한 곡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페르귄트 모음곡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들려주셨던 음악이에요. 간단하게나마 즐거리를 설명해주셔서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부분에서는 공기가 따뜻해지겠구나 생각도 하고 새소리도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현재 노르웨이에서의 저의 삶과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로 엮어주는 상징적인 음악이라 특별해요.

마지막으로 연주할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입니다. 이 곡은 어떻게 선정하게 됐나요?

2012~13년 즈음, 오케스트라와 처음 만났을 때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했고, 취임 전에는 6번도 연주했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와일드한 면, 격정적인 정서, 열정적인 면이 차이콥스키와 잘 어울렸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제일 잘하는 연주로 자랑하고 싶었는데, ‘비창’의 비장함과 비범함을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서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요. (장한나&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11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4일 부산, 16일 대구, 17일 익산)

글 | 이지영 (클럽 발코니 편집장)
클럽 발코니 Club BALCONY 94호 발췌

BEETHOVEN 250th ANNIVERSARY

ANNE - SOPHIE MUTTER
VIOLIN RECITAL
PIANO - LAMBERT ORKIS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세상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 Telegraph

사운드, 스피드, 파워, 개성.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다!

- New York Classical Review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번 A장조, Op.23 |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Op.24 '봄' |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Op.47 '크로이처'

2019.11.29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12.24(화) 2PM & 6PM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REZIA MUSIC & ARTISTS | 후원 | LOTTE ENTERTAINMENT | 후원 | KOREAN AIR 5G | 티켓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12.22(일) 2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24(화) 8PM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REZIA MUSIC & ARTISTS | 후원 | KOREAN AIR 5G | 티켓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에피 브론프만)
-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도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 [공연3] 안드레아스 사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 [공연5] 베이스-바리톤 여원 슈르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책차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도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Premium Lifestyle Solution Provider로
끊임없는 고객만족과 서비스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Mercedes-Benz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 :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분당정자 031) 786-6000 • 안양평촌 031) 689-8900 • 구리 031) 579-0900
 • 용인수지 031) 5183-9200 • 스타필드하남 031) 8072-8900 • 청주 043) 299-9000 • 천안 041) 620-7000 • 인종 중고차 죽전 031) 786-6171
 서비스센터 : • 강남대로 02) 570-1111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송파 02) 2152-3333 • 죽전 031) 786-6100
 • 안양평촌 031) 596-2600 • 구리 031) 579-0970 • 용인수지 031) 290-3700 • 청주 043) 299-9090 • 천안 041) 620-7070
 고객센터 : 1899-0808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복합CO2 배출량: 148g/km · S 450 Long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140kg, 9G-TRONIC), 복합연비: 8.6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05g/km · S 560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8.4km/ℓ (도심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11g/km ·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275kg, AMG SPEEDSHIFT MCT 9-Speed), 복합연비: 7.8km/ℓ (도심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복합CO2 배출량: 22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CRE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EDIA MUSIC & ARTISTS

CREEDIA
INTERNATIONAL

CREEDIA
ENTERTAINMENT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